



2020년 5월 10일(제981호) 부활 제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는 단어는 참 다양하게 쓰입니다. 인도, 찾길, 산길 등 실제 있는 ‘길’부터 인생길, 신앙의 여정, 천국으로 가는 길, 다음 시대로 가는 길 등 추상적인 ‘길’까지 매우 다양하지요. 이처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적용되는 것이면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길’에 대해 말씀하시며 다른 어떤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라,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행을 실천해라, 자선을 실천해라 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걷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께 여쭙볼 수밖에 없었지요.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이 답변은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길에 누가 함께합니까?

두려움에 도망치기도 하지만 결국 그분의 길로 돌아오는 그 제자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이미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 곁에 머무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동길(무빙워크)과도 같은 ‘길’입니다. 그 길 위에 머무르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줍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머무르는 방법은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일상 생활 중에 예수님의 곁에 머무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사 때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힘을 냅시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길에 올라섭시다. 그분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윤상원(시른) 신부
편집(32시른) 상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사도 6,1-7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1베드 2,4-9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14,1-12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조숙 베드로



성인명: 조숙 베드로 (趙淑 Peter)
신분: 양반, 동정 부부, 순교자
활동연도: 1786-1819년

‘명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던 조숙(趙淑) 베드로는 1786년 경기도 양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숙’은 그의 관명(冠名)이다. 이후 그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양친과 함께 강원도의 외가로 피신하여 생활하게 되었다.

성장해 감에 따라 조 베드로는 출중한 재능을 보였고, 성품 또한 착하고 친절하였으며 나이에 비해 아주 젊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점차 등한시하게 되었다. 그가 다시 신앙에 눈을 뜨게 된 것은, 17세 때 권천례 데레사를 아내로 맞이하면서이다. 혼인날 밤, 아내 권 데레사는 ‘동정 부부로 살자고 부탁하는 글’을 써서 조 베드로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는 마음이 변하여 아내의 뜻을 들어주었고, 잠깐 사이에 신앙심이 되살아나서 판사람이 되었다.

이후 조 베드로 부부는, 남매처럼 지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면서 생활하였다. 그들의 신심은 날로 깊어져기도와 복음 전파, 고신 극기 행위가 일상이 되었으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을 위한 애공에 열중하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조 베드로 부부는 정하상 바오로 성인을 도와 일하게 되었다.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 성직자를 영입하려고 북경을 오갈 때마다 필요한 뒷바라지는 모두 그들 부부의 몫이었다. 당시 고 바르바라(또는 막달레나)라는 과부가 그 집에 살면서 그들 부부를 도와주었다.

그러던 가운데 정 바오로 성인이 다시 한번 북경에 갔을 때, 포졸들이 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조 베드로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다. 이내 포졸들은 그의 집으로 몰려들어 그를 체포하였다. 이때 아내 권 데레사는 자원하여 남편을 따라나섰고, 고 바르바라도 그들 부부와 함께 투옥되었다. 그때가 1817년 3월 말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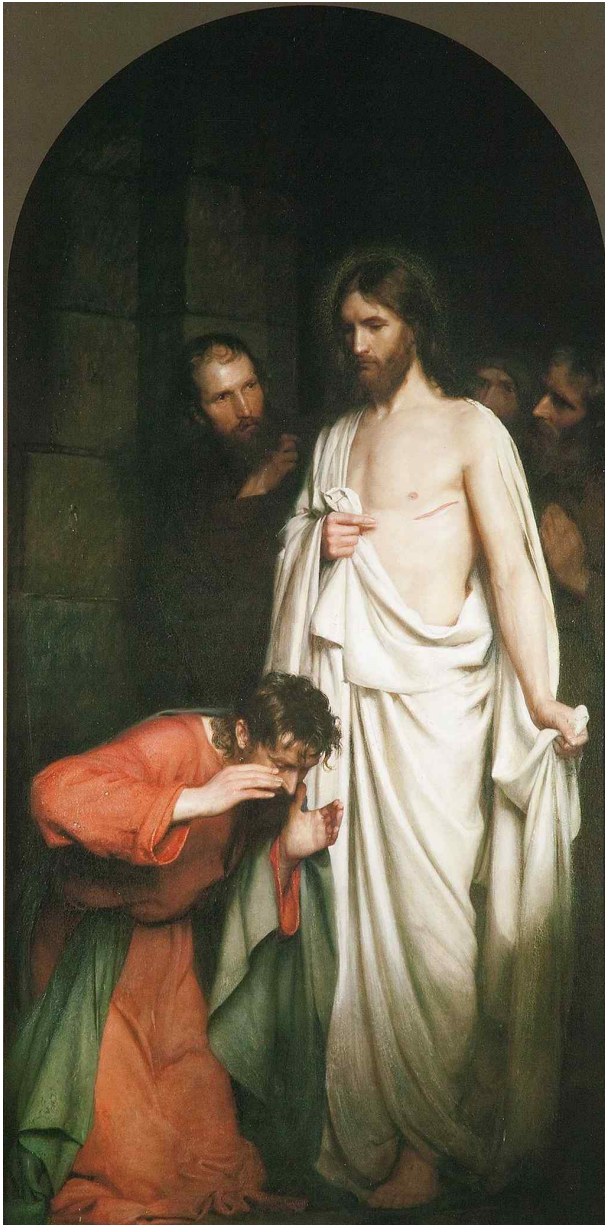
문초가 시작되자, 관장은 조 베드로 부부를 유혹하면서 ‘배교하고 동료들을 밀고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으며, 혹독한 형벌을 꺾듯하게 참아 내었다. 관장은 몇 차례에 걸쳐 문초와 형벌을 가하였지만, 그들 부부의 신앙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다. 이후, 고통스러운 옥살이 중에도 조 베드로 부부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특히, 아내 권 데레사는 남편 조 베드로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순교를 권면하였다.

조숙 베드로 부부와 고 바르바라는 이렇게 2년 이상을 옥에 갇혀 있어야만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의 신앙은 여전히 굳건하였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칠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그들 셋이 참수형을 받고 순교한 것은 1819년 8월 10일(음력 6월 20일) 이후로, 당시 조 베드로의 나이는 33세였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일상 안에서
				<p>늘, 반복되는 일상.</p> <p>그 안에서 당신을 찾으며, 살 수 있길.</p> <p>그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길.</p>

상화이야기

의심하는 토마스



모든 상처와 고통의 흔적이 깨끗하게 사라지신, 눈이 부시게 흰 몸의 예수님 앞에 토마스 성인이 놀란 손짓으로 무릎을 꿇고 있다. 예수님 옆구리의 상처가 선명하게 보인다.

‘어떻게 …….’ ‘어떻게 …….’ 토마스는 ‘어떻게’에 묶여 있습니다. 토마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어떻게’는 토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입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어떻게’를 찾아나서는 것은, 지도도 없이 미지를 탐험하는 일과 같습니다. 토마스나 필립보는 자기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실은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한계 때문입니다. <매일미사, 오늘의 묵상 중>

필 로토프, 1822년 작
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관, 미국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 교구장 동정

- 참사회의
 때·곳: 5월 12일(화) 14:00, 자운대 성당
- 2020년 입대 군종신부 훈련 위문
 때·곳: 5월 14일(목) 11:00, 학생군사학교
- 「찬미받으소서」 주간 기념 미사
 때·곳: 5월 16일(토) 19:00, 명동 성당

군중주보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부활 제5주일: 진진 최재관 신부

◆ ‘군중의 시간’ 안내

-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를 따르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니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